

민주, 13일 차기 원내대표 선출… 새정부 여당 진용 재정비

입법 과제 실현·대야 협상력 요구…조승래·서영교·김병기 등 거론

이번주 후보 등록·12~13일 권리당원 투표…의원 투표로 최종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3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면서 새정부 여당의 진용을 재정비한다.

4일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을 공식 공고하고, 후보 등록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원내 사령탑인 만큼, 집권 초기 국정 운영에 힘을 실을 수 있는 인물에게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당 안팎에서는 새 원내대표가 대통령과 원활하게 소통하고, 집권 여당으로 국정을 주도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이 각축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동시에 170석의 거대 야당의 입법 과제를 이끌 추진력과 야당과의 협상력을 두루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는 평가다.

현재 거론되는 유력 후보군(선수·가나다순)으로는 4선의 서영교 의원, 3선의 김병기·김성환·조승래 의원 등이 있다.

출마가 유력한 이들 중 유일한 여성인 서영교 의원은 ‘이재명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냈다.

이번 대선에서는 골목골목 선거대책위원회 대구·경북 본부장을 맡아 보수 텃밭인 TK에서 표심

공략에 나선 바 있다.

김병기 의원은 ‘신명’(신진명계)의 핵심적인 인사로 꼽힌다. 지난 총선 당시 공천관리위원회 간사로 활동하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선대위 조직본부장을 맡았다.

김성환 의원은 대표적인 ‘정책통’으로 이번 대선에선 정책본부 공동본부장을 맡아 대선 공약 개발을 주도했다. 역시 신명계로 분류된다.

조승래 의원은 ‘이재명 2기 지도부’에서 수석대변인을 맡았고, 이번 대선에서는 공보단장을 맡아 ‘이재명의 입’ 역할을 해왔다. 비교적 계파색이 덜은 인사로 여겨진다.

‘친문’(친문재인)계인 한병도 의원도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는 의원단 투표와 함께 권리당원 표심 20%가 반영된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당규 개정을 통해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법관 수 30명 증원’ 법사소위 통과

현행 14명서 16명 늘리되 시행은 1년 유예…민주, 단독 의결

대법관 수를 늘리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1년에 4명씩 총 4년간 16명을 늘리되 법안이 공포된 뒤 1년간은 그 시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담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소위에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김용태 의원의 개정안,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의 개정안이 상정돼 병합 심사됐다.

대법원은 당혹감 속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소위에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이 출석해 법안 개정 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 차장은 상고심의 전체심리 구조, 체계 개편에 관한 논의와 함께 대법관 증원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고, 숙고할 시간이 없어 인원만 급하게 확대하면 바람직한 상고심 모습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당초 이날 곧바로 전체회의까지 열어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소위가 길어지면서 전체회의는 열지 않았다.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찬대입 처장(대법관)이 출석해 대법관 증원법안에 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간 대법관 증원이 상고심 체계를 크게 바꾸는 일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법원행정처 내부적으로도 구체적인 인원이나 예산, 상고심 운영 방안에 관한 신중한 검토 없이 법안이 일방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견해가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사법 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단순히 ‘상고심 사건 수가 많으니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는 논리로만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하게 처리하는 건 우려스럽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우선 과제는 내란 청산·사회 대개혁”

이재명 대통령 취임날인 4일 오후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18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광주비상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에 내란 세력 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나명주기자mjna@kwangju.co.kr

“지도부 물러나라”…국힘, 대선 패배 후폭풍

친한동훈계 등 지도부 총사퇴 요구…거취 표명 않고 버티기

국민의힘이 4일 대선 패배 후폭풍에 휩싸였다. 계엄·탄핵 정국이라는 어려운 구도에서 치러진 대선이지만 3년 만에 정권을 내준 충격 속에 당이 전면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쇄신론이 분출하는 모습이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현 지도부가 거취 표명을 하지 않은 가운데 친한(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지도부 총사퇴 요구도 나왔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패배를 계기로 반성하고 혁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대선 후보 최종 경선에서 김문수 전 후보와 맞붙었던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께서 ‘불법 계엄’과 ‘불법 계엄 세력을 옹호한 구태정치’에 대해 단호한 퇴장 명령을 내리신 것”이라며

“구태 정치를 완전히 허물고 국민이 먼저인 정치를 바로 세울 마지막 기회”라고 밝혔다.

경선 후보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이었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계엄과 탄핵으로 치러진 대선인데 경선 과정에서부터 ‘탄핵 반대’와 ‘탄핵 찬성’으로 나눠 싸우는 모습 자체가 옳지 않았다”고 말했다.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무거운 민심의 회초리를 겸허히 받겠다. 저희 당이 뱃속까지 바뀌어야 한다는 준엄한 명령일 것”이라며 “패배의 책임에서 저를 비롯한 누구 하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적었다.

TK 재선인 김승수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이은 총선 참패와 대통령 탄핵까지 당하고도, 통렬한 반성과 뼈를 깎는 쇄신은 고사하고 여전히 오만하고,

무책임하고, 무기력했다”고 페이스북에 밝혔다.

조정훈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선택받지 못했다. ‘그래도 한 번 더 기대해보겠다’는 마지막 마음마저 지켜드리지 못했다”며 “그 앞에 변명은 없다. 다시 묻고, 다시 듣겠다. 그리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밝혔다.

새 지도부 구성 여부와 시기, 방식 등 향후 당 수습방안을 놓고는 내부 이견이 감지된다.

당장 친한계 박정훈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민이 놀랄 변화”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못한 김용태 비대위는 즉시 해체하고 대선판을 협잡으로 만들었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하루빨리 새 원내지도부를 꾸려 우리 당의 진로를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파색이 열은 한 중진 의원도 통화에서 “당 대표든, 원내대표든 선거에서 패배하면 책임지는 것이 기본적인 관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문수 “깊은 성찰 필요” 국힘 작심 비판

국힘 선대위 해단식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4일 당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작심 비판에 나섰다.

김 전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해 “여러분 정말 죄송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을 보며 제가 정말 너무나 큰 역사적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그 뜻을 담아 국민들과 당원 동지들께 큰 절로 사죄를 올린다”며 큰절을 했다.

그는 대선 패배 요인에 대해 “우리 당이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 이해와 신념, 그걸 지키기 위한 투철한 사명이 없기 때문”이라며 “그것이 계엄이라는 상상할 수 없는 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계엄을 했던 대통령을 뽑았고, 대통령의 뜻이 당에 많이 일방적으로 관철된 데 깊은 자성이 필요하다”며 “정치는 목표도 중요하지

만 수단이 중요한데, (대통령이) 매우 적절치 않은 수단을 쓰는 데 그걸 제어하는 힘이 우리 내부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빚어진 ‘후보 교체’ 논란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 과연 어떤 사람을 당 대표로 뽑느냐, 공직 후보로 뽑느냐, 민주주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삼척동자도 봐도 말이 안 되는 방식으로 공직 후보를 뽑지 않았다”라며 “깊은 성찰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부족함으로 기회를 놓치고 그로 인해 고통받고 상처받은 국민들을 생각하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그린

알로에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알로에 베라겔 즙액으로 400%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제조사 :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 한국건강기능식품회에서 광고심의 받은 광고를 입니다.